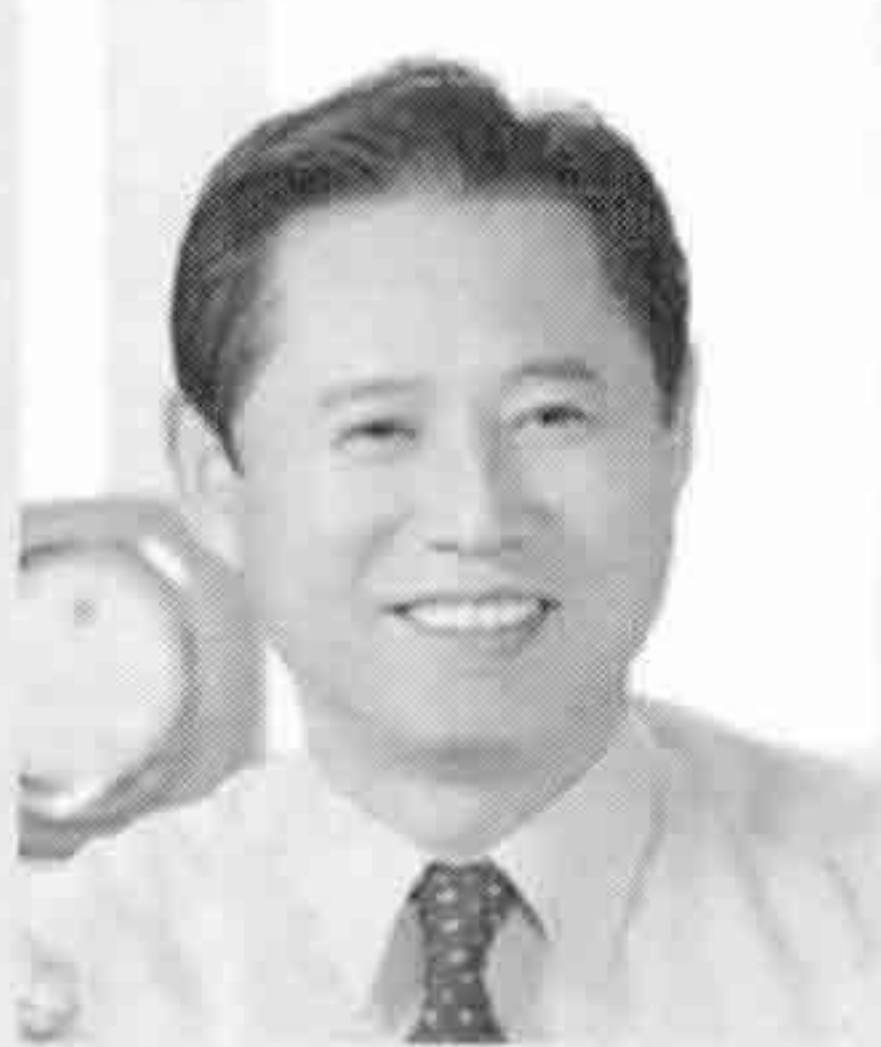


신개념 밀폐용기 '애니락' 통해 시장 주도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



최우각

(주)대성하이텍 대표이사

1995년 설립된 (주)대성하이텍(대표이사 최우각)은 정밀부품을 비롯한 공작기계와 반도체 장치, 인쇄기 부품 등 기계산업 전 분야에 걸쳐 부품가공 및 완제품 조립에 이르기까지 소화해내는 정밀부품·기계생산 전문기업이다. 초정밀의 엄격한 품질관리로 생산하는 (주)대성하이텍의 제품은 일본, 미국·영국 등에 100% 수출하며, 그 저력을 이미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대성하이텍은 10년 이상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수출전문 기업이자, 해외에서의 지명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1995년부터 일본 최대 공작기계사인 야마자키마작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기계분야에서는 초정밀 가공력으로 정평을 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특히 대성하이텍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신선잠금



▲ 대성하이텍의 신선잠금 발명특허 '애니락'



▲ 애니락 사용방법

발명특허 “애니락”인 신개념의 밀봉도구를 개발하면서 사용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애니락(Anylock)’은 해외진출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포장분야 뿐만 아니라 주방도구로서도 밀봉력과 기능성을 인정받고 있는 제품이다.

애니락은 밀폐, 저장, 운반용 비닐팩 잠금장치로, 간편한 슬라이딩 방식의 “신선잠

금” 밀폐도구이다. 외, 내부의 충격이나, 압력에 대한 저항성을 가지며 내용물을 적절히 밀폐보관으로 유지시켜 가정이나, 산업용에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발명특허를 얻은 신개념 제품이다. 어떤 종류(Any)의 비닐팩도 간편하게 잠근다는(Lock) 뜻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기존 밀봉용구와 차이가 난다. 독특한 슬라이딩 방식의 비닐 팩 밀봉 용구로, 식료품을 밀봉할

때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다. 애니락 봉에 맞춘 전용 팩이 함께 출시돼 더욱 탁월한 밀폐력을 기대할 수 있

고, 사이즈와 용도별 패키지 구성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한 ‘차세대 일류 상품’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 회사가 애니락 개발에 나선 것은 사업다각화 차원이다.

최우각 대성하이텍 사장은 2003년부터 사업다각화를 꾀했다. 그 중 하나가 애니락이었다.

최 사장은 “일반 가정에서는 설탕이나 남은 음식 등을 비닐에 넣어 고무줄로 묶어 보관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고무줄 대용으로 쓸 만한 제품을 개발한다면 히트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대성하이텍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품개발에 성공했고 해외시장에 먼저 진출했다.

해외시장에서 안정적인 유



▲ 대성하이텍의 공장전경

DSHT



▲ 가정이나 산업용에도 폭넓게 적용 가능한 '애니락'



▲ 방수팩 '쿨락'

통망을 확보하고, 이를 발판으로 국내에 역진출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최우각 사장이 해외시장 공략에 먼저 나선 것은 국내시장을 파고들기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국내 유통망을 갖고 있지 못한 데다, 중소기업의 사정상 광고·홍보 비용을 마음 놓고 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 사장은 "수출은 뚫기가 어렵지만 바이어와 거래만 트면 수출처럼 좋은 게 없다"며 "무엇보다 재고부담이 없고 거래 물량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애니락의 홍보전략은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각종 박람회와 국내 전시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홍보 및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지난 해에도 15회의 국내외 박람회에 애니락을 출품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 대성하이텍은 국내외 박람회에 애니락을 출품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애니락은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3000여개의 오프라인 점포와 홈쇼핑 등에서 애니락이 성황리에 판매되고 있다.

국내시장 역시 애니락의 진가가 빛을 발하고 있다.

애니락의 밀봉력은 국내의 쌀 소포장 유통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미 10여개 브랜드의 쌀업체가 애니락을 적용한 포장재를 출시하여 유통하고 있다.

쌀이나 농산물 뿐만이 아니라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에서도 그 밀봉력을 인정 받아 대

형마트의 김치포장재로도 활용된 바 있으며 대형마트의 즉석 도정미 포장재로도 곧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애니락 이외에도 대성하이텍은 단순 밀봉 용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다용도 접이식 물통 '매직스'와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을 방수 보관 할 수 있는 방수팩 '쿨락'을 선보였다.

특히 쿨락은 야외 레저 물놀이 시 물품 보관용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의 주요 소지품을 물이나 모래 등에서 방수 보관하고, 휴대할 수 있는 획기

적인 아이디어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가격대도 1만원 이하로 저렴해 주방뿐만 아니라 레저와 스포츠 현장에서도 다양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대성하이텍은 국내에 애니락을 더욱 알리기 위해 시장 세분화와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하여 적극적인 판매를 촉진하고 해외의 경우, 간편성 및 재활용성의 가치를 끊임없이 홍보하고, 종합적인 Marketing NetWork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 쇼핑몰(www.anylock.co.kr) 사용자들이 급증하면서 e-marketing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수출 환경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의 수요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을 통해 신상품 개발, 기술혁신을 이룩한 대성하이텍. 현재 21세기 새로운 밀폐보관 용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

이한얼 기자